



동강대 RNTC, 자연정화 활동 'ESG' 실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제305학생군사교육단 RNTC가 자연정화 활동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하며 미래 직업군인으로서 솔선수범했다.

동강대 학군단은 지난 4일 RNTC 9기 후보생이 참여한 가운데 새교내 정화활동과 후보생 10·11기 모집 활동을 벌였다. 부사관학교 군악대를 초청해 대중가요, 군가 메들리 등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등 RNTC를 홍보했다.

RNTC는 설치 대학의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을 1학년 1학기 때 선발해 3학기 동안 교내 교육 및 입영 훈련 과정을 거쳐 대학 졸업 후 임관시킨다. 2022년 7월 창설된 동강대 RNTC는 지난 2월 첫 임관 육군 하사 18명(남 13·여 5)을 배출했다. 동강대 학군단은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RNTC를 알리고 국가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국가공무원 선발에 앞장서고 있다. 김혜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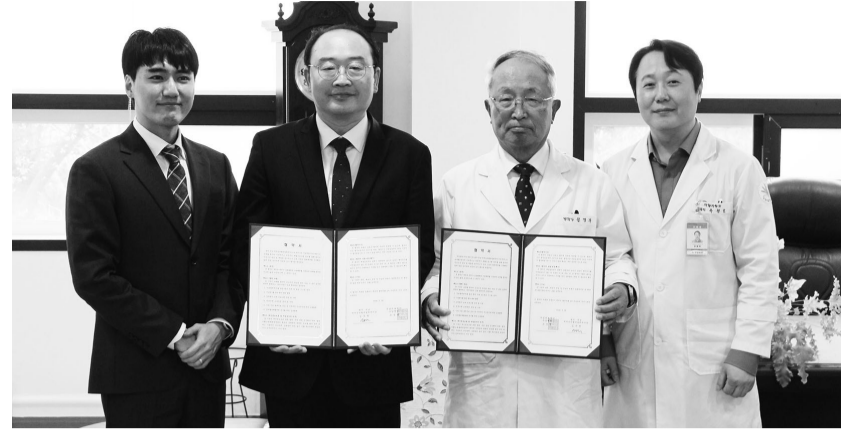
광주호남 소진공 '해뜨는 식당'에 식료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소진공 광주호남본부)는 최근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 위치한 천원 밥상 '해뜨는 식당'을 방문해 기부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

해뜨는 식당은 14년째 단돈 1000원에 백반을 판매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책임져 온 식당이다.

소진공 광주호남본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고자 양파, 무 등 식재료를 기부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였다. 기부품은 이봉희 본부장 등 보직자 16명이 올해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에 선정된 대인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전달했다.

이봉희 소진공 광주호남본부 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마련해주시는 '해뜨는 식당'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우암병원과 협약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우암병원 회의실에서 지역 재활연계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우암병원(대표원장 김영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주·전남 권역 급성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 능력 제고 및 조기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예방관리 서비스를 위해 지난 2009년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또 뇌졸중 등으로 전남대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전문 의료기관 안내 및 환자의 추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연계 의료기관 협약

을 맺은 의료기관은 우암병원을 비롯해 신가병원, 씨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희망병원, 동명병원, 슬기로운재활의학과병원, 참병원 등 모두 7개 기관이다. 특히 우암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회복기 재활전문 의료기관으로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해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우암병원 은 이번 협약을 통해 △뇌졸중 재활환자 연계 △연계환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능평가를 통한 환자 관리 협력 △의료기관 전문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북광주농협 '하나로마트 매출 달성탑'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3일 광주농협(조합장 김순택)과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이 '하나로마트 매출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

'하나로마트 매출 달성탑'은 마트 사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말 매출액 기준 100억원 단위 초과 달성 시 수여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3년 하나로마트 매출 활성화에 주력한 광주농협과 북광주농협이 각각 600억원, 1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광주농협은 2022년 500억원 달성 후 불과 1년만인 2023년 600억원을 달성했으며, 북광주농협은 2023년 7월 하나로마트로 커피푸드 개장 후 단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하나로마트가 농업인의 판매장구 역할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광주전남적십자, 자연숲 생태복원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화순군 화순읍 너와나목장 일원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숲 생태복원을 위한 '나무심(心)다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

이번 행사는 2024년 무등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 첫걸음으로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로 시작됐으며 적십자봉사원·직원 30명과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20명이 참석했다.

방재면적은 2000㎡로 식재 수목은 참나무류 500주를 식재했다.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숲 생태복원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탄소중립 및 인도주의 활동지원 등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부터 외래종 제거 및 자생식물채종 등 야생생물 공존 캠페인 등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정상이 기자

아이콘 바비·정찬우, 내달 입대... "비공개 입소"

그룹 '아이콘(iKON)' 멤버 바비(BOBBY·29·김지원)와 정찬우(26)가 다음 달 입대한다.

7일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바비와 정찬우가 5월21·27일 각각 훈련소에 입소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바비와 정찬우의 입대는 지난해 7월 멤버 김진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바비는 지난 2월부터 일본 오사카·도쿄·필리핀 마닐라에서 '바비 제로 그라비티 인 아시아(BOBBY ZERO GRAVITY in ASIA)'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달 30일 마지막 도시 서울 공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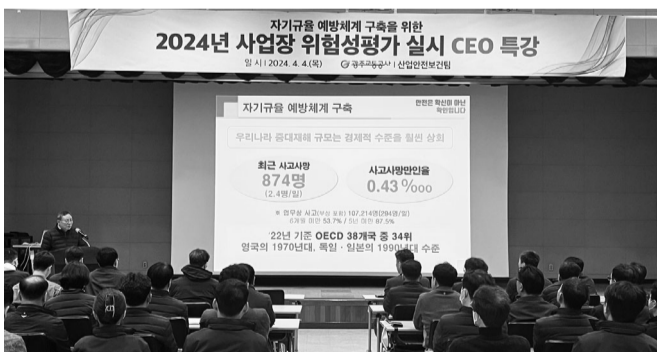


바비 정찬우

펼친 바 있다.

정찬우는 오는 19일 일본 팬미팅 투어 '찬 찬 찬(CHAN CHAN CHAN)'과 솔로 음원 발매에 돌입한다. 입대전 아이콘과 자신을 아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뉴시스



광주교통공사, 중대재해 예방 CEO 특강

광주교통공사는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마복동 본사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대비 CEO 특강을 실시했다.(사진)

7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조익문 사장은 강의를 통해 각 부서장 및 팀장, 현장 관리감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개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수칙 준수 및 위험성 감소 대책 발굴 등을 당부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도시철도 운영관련 작업공정, 부대시설 운영, 비상대응 분야 등 공사 사업장 내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인식 제고에 적극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광산경찰, 치매노인 대상 지문사전등록

광주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치매 노인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우산동 해누리노인복지센터에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

지문등록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자폐·정신장애·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을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로 가족에 인계하는 시스템이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지구대·파출소 어느 곳이든 방문 등록 가능하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문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이상민, 20년만 69억7천만원 빛 청산...채권자와 작별

그룹 '롤라' 출신 이상민(사진)이 69억7000만원의 빚을 20년 만에 청산했다.

7일 오후 9시5분 방송되는 SBS TV 예능물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 이상민이 채권자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이상민은 20년간 빚을 갚으며 인연을 맺어온 채권자의 집을 찾았다. 이상민의 모친상에 유일하게 찾아온 채권자에게 감사함을 전한 이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 걸렸어요. 형님"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이상민은 20년간 갚아오던 69억7000만원의 빚을 드디어 청산했음을 고백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 채권자는 "이 서류들을 찢고 훌훌 털어라"라며 20년간 갖고 있던 빚 서류들을 건넸다. 이상민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튜디오의 MC들과 모(母)벤저스 역시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고생 많았다", "정말 장하다"며 대견함을 감추지 못했다.



20년간 인연을 맺어온 이상민과 채권자 사이에 큰 위기가 있음이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던 이상민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때 처음으로 이상민이 채권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상민의 행동에 채권자는 "이상민과 이제 끝이구나, 그때가 큰 고비였다"고 고백했다. 당시 이상민을 찾아가던 채권자는 처음 보는 이상민의 눈빛과 행동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69억원의 빚을 청산한 이상민이 다시 은행을 찾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빚을 갚자마자 다시 은행에 올 수밖에 없던 사연을 고백하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여 무슨 사연일지 이목이 집중됐다.

뉴시스